

# 광주시, 정책 시행하기 전 인권침해 여부 꼼꼼히 살핀다

### 인권영향평가 내년 본격 시행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주민 참여 보장 등 검토·자문

광주시는 주요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인권침해 요인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인권영향평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다.

광주시는 22일 “인권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을 담은 인권조례를 지난 7월 개정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고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 운영 상황을 분석하는 등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시법적으로 ‘자치법규’ 대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보완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주요 핵심 정책·사업 등으로 평가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

인권영향평가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도 손을 맞잡았다.

지난 20일에는 지역 내 인권 관련 전문기관인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업무지원 협약을 하고, 앞으로 광주시의 조례·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전반을 지원받는다.

또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업무 담당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날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대상과 절차 등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도 했다.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면 해당 부서는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주민의 참여는



광주시가 국내 광역자치체로는 처음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했다. 지난 20일 열린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업무지원협약 모습. <광주시 제공>

보장되었는지, 시민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있는지를 등을 1차 체크리스트에 의해 검토하고,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 결과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권고를 하고, 권고를 받은 부서는 권고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 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 성북구, 수원시, 광명시가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로는 광주시가 최초다.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광주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시민들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미리 점검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인권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제도로, 시 행정인 시민 모두를 배려하는 인권행정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국감 모범 사례 꼽힌 광주시 환경사고 대처

### 세방산업 발암물질 90% 저감

(주)세방산업의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 과다배출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신속한 대처가 국감감사장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 을)은 세방산업 TCE배출대책 검증위 위원장이었던 조선대 이철갑 교수로부터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활동한 검증위의 성과를 청취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광주시,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발암물질을 90% 이상 저감시킨 사실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며, 타 시·도에 전파해 사고 발생시 교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6년 7월 7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조사(PRTR) 결과 광주시 하남산단에 자리한 (주)세방산업에서 발암물질인 TCE가 과다 배출됐다는 지역시민단체로부터 지적이 일자 광주시는 곧바로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검증위원

회를 구성한 바 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세방산업 굴뚝에서 배출되는 TCE 농도는 2016년 8월 81.5PPM에서 2017년 9월 11일 현재 불검출 수준(기준: 국내법 50~85PPM)으로 개선됐다.

문병재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광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어떤 화학물질로부터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민선 6기 시장철학에 따라 지역의 각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대응한 결과 불검출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 5월 진행된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

<광주일보 자료사진>

## 콘서트·전시회... 28일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 풍성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8일, 올 들어 두 번째로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

개방 노선은 서석대 주상절리대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부대 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람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번 정상 개방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가을여행주간과 연계해 장불재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클래식, 포크 공연을 선보이는 숲속 힐링콘서트도 열린다.

또 역사사진 핀 만들기, 무등산 사진 전시회 등도 진행된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념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질서계도 요원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119구급차량, 헬기 등을 배치한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1187번, 1187-1번을 증편 운행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광명아파트

맞은편 장원초등학교 운동장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무등산 정상개방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군부대 내를 출입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무등산 정상은 지난 1966년 군부대 주둔한 이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처음 개방한 후 2017년 봄까지 총 19회에 걸쳐 38만7000여 명이 다녀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꽃보다 아름다운 이웃사랑

### 하남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꽃화분 나눔 행사’

“활짝 핀 꽃처럼 웃음꽃 달고 사세요.” 광주하남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등이 최근 자신들이 직접 키운 꽃을 지역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22일 주택관리공단 광주하남1단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하남1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행복나누기 꽃화분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입주민과 우산동 주민들로 구성된 화훼동아리 회원들은 하남1단지 내에 마련된 화훼하우스에서 직접 키운 국화·백일홍 등 300그루를 독거노인·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하남1단지 관리사무소가 영구임대단지 입주민과 지역 주민간 단

절을 막고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앞서 하남1단지 관리사무소는 지난 2월 광산구 우산동주민회의에서 마을 의제로 화훼하우스 설치를 제안, 광산구로부터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해당 입주민들은 직접 키운 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등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라는 입장이다.

오성식 하남1단지 관리사무소장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며 “화훼동아리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주거복지 서비스의 모든 것

### ‘주거생활문화 박람회’ 성료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체험하고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거생활문화 박람회가 지난 20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렸다.

주택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가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한 이날 박람회는 사회복지관과 법무사 등 기관이 참여하고 전시 및 부대행사, 주제별 부스가 운영됐다.

특히 ‘주택자가보수체험관’과 ‘주택안전체험관’ 부스는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으로 인기를 끌었고, 시민들은 주택 관련 법률 상담과 복지단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안내받는 등 다양한 주거생활문화를 체험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방치된 묘지 70%(추정)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본 자연장은 이릉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화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